

폴란드 사무소/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6월 3주 ~ 6월 4주)

□ 정책 및 시장 동향

① 폴란드 경제 동향

- 폴란드 정부, 2027년 최저임금 3% 인상안 승인(6.9)
 - 2027년 최저임금을 현행 월 4,806즈워티에서 3% 인상한 월 4,950즈워티 (약 1,165유로)로 조정하는 방안을 승인
 - 최저시급도 현행 31.40즈워티에서 32.30즈워티로 인상될 예정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추진
 - 통계청(GUS)에 따르면 '26년 4월 기준 평균 월 총임금은 9,530.74즈워티로, 2027년 예정 최저임금은 평균 임금의 약 52% 수준
- 세계은행, 폴 경제성장률 2026년 3.1%, 2027년 2.6% 전망(6.11)
 - 세계은행은 GDP 성장률을 2026년 3.1%, 2027년 2.6%로 유지
 - 이는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2.5%를 상회하는 수준
 - 폴란드 경제는 유럽 주요국 대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2028년은 2.9%로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측
- 폴란드, 2026~2031년 신규 국가협력프레임워크(CPF) 출범, 2031년 이후 세계은행 개발 대출 프로그램 졸업 추진(6.16)
 - 폴란드는 1990년 경제 개방 직후 자국 인프라 구축 및 경제 재건을 위해 세계은행으로부터 약 165억 달러 규모의 개발 대출을 최초 차입
 - 이후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과거 차입했던 대출금을 일정 기간 전액 성실 상환 완료하며 세계은행 원조국 체제에서 일차적으로 탈피
 - 최근 경제 고도화 및 청정에너지 전환 등의 신규 전력 투자가 필요해짐에 따라, 폴란드 정부는 세계은행과 2026~2031년 국가협력프레임워크(CPF)를 체결하고 일시적인 재차입 및 신규 자금 수급 프로그램을 가동
 - 신규 CPF를 통한 재차입은 자국 경제 성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마지막 차입'으로 규정, 3대 과제(투자·혁신, 에너지 전환, 기후 회복력)에 자금을 전량 투입할 계획

- 폴란드 정부는 이번 신규 차입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2031년 이후를 기점으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개발 대출을 전면 종료하고, 더 이상의 재차입 없는 영구적인 '세계은행 졸업'을 최종 목표로 설정

② 우크라이나 경제 동향

○ IMF, 우크라이나 2026년 GDP 성장률 전망치 1~1.6%로 하향 조정(6.16)

- IMF는 2026년 우크라이나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1.6%로 하향 조정
- 우크라이나의 실질 GDP는 2025년 1.8% 성장했으나, 2026년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0.6% 감소한 것으로 집계

○ 우크라이나, 2026년 법정 최저임금 월 8,647 흐리우나

- 2026년 법정 최저임금은 월 8,647흐리우나(약 193달러)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중
-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 의무와 처벌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쟁 장기화와 비공식 경제 비중 등으로 인해 일부 부문에서는 최저임금이 충분히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지속

○ 우 중앙은행, PrivatBank IPO 추진 검토, 바르샤바 증시 상장 가능성 제기(6.11)

- 우크라이나 중앙은행(NBU)은 국영은행 PrivatBank의 IPO를 이르면 2027년 추진할 계획이며, 우크라이나 또는 폴란드 바르샤바 증권거래소 상장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
- NBU는 또한 국영은행 Ukrgasbank와 Sens Bank의 민영화를 2026~2027년 중 추진할 계획이며, 가능한 한 조속히 시장가격에 매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EU 금융그룹들이 해당 인수에 관심, 일부 해외 은행들은 이미 투자자문사를 선정해 인수 검토에 착수

- 우크라이나 국영은행들이 디지털 서비스와 프로젝트 금융 부문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정부가 대비 최대 50% 높은 수준에서 평가될 것으로 전망
- **우크라이나, 2026년 1분기 자본투자 5.1% 증가(6.18)**
 - 우크라이나 국가통계청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자본투자(Capital Investment)는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1,301억 흐리우냐를 기록
 - 산업 부문이 전체 투자액의 41.2%(536억 흐리우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농림수산업 12.7%(165억 흐리우냐), 도·소매업 10.3%(134억 흐리우냐), 건설업 9.4%(123억 흐리우냐) 순으로 집계
 - 전체 자본투자의 93.3%가 유형자산에 집중됐으며, 세부적으로는 기계·장비·공구(38.2%), 엔지니어링 구조물(19.2%), 비주거용 건물(10.9%), 운송장비(10.5%) 등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 자본투자 재원은 기업 및 기관의 자체 자금이 78.6%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 지역별로는 수도 키이우가 전체 투자의 40.3%(525억 흐리우냐)를 차지하며 투자 집중 현상이 지속
- **우 중앙은행, 기준금리 15% 유지, 5월 물가상승률 전년 동기 대비 8.2%로 둔화**

3 폴란드 인프라 및 외교 동향

- **Panattoni, 포즈난 서부 물류단지 'Poznań West Gate I' 개발 위해 31백만 유로 금융조달 성공, Bank Millennium 대출 제공(6.11)**
 - Panattoni는 Bank Millennium로부터 31백만 유로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확보했으며, Tarnowo Podgórze에 총 6.1만m² 규모의 물류·경공업 복합단지 개발을 추진 중
- **폴란드 우주감시 스타트업 Sybilla, 8백만 유로 투자 유치, 센서망 100기 확대·궤도상 자체 센서 배치 추진(6.11)**
 - 폴 우주항공 기업 Sybilla Technologies는 첫 투자 유치에서 8백만 유로 조달
 - 해당 기업은 폴란드·이탈리아·프랑스 국가 우주기관과 European Space Agency(ESA)에 우주상황인식(SSA) 데이터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

- 주요 고객으로는 European Defence Fund(EDF)와 EU Space Surveillance and Tracking(EU SST) 등 유럽 주요 우주·안보 기관이 포함
- **Tauron Ciepło, 카토비체·티히 열병합발전소 가스망 연결 계약 체결, 석탄 대체 전환 가속화(6.10)**
 - 폴 최대 가스배관 운영사 Polska Spółka Gazownictwa(PSG)가 Tauron Ciepło와 Katowice 및 Tychy 열병합발전소의 가스망 연결 계약을 체결
 - 가스 공급은 PSG가 EU 자금을 활용해 추진 중인 약 170백만 즈워티 규모의 고압 가스관 건설사업(Dąbrowa Górnicza Tworzeń - Bytom Łagiewniki 구간)과 연계돼 추진됨
 - PSG는 앞서 체호비체-지예지체(Czechowice-Dziedzice)의 Bielsko Północ EC2 열병합발전소와 치에신(Cieszyn) 열병합발전소도 가스망에 연결한 바 있으며, 지역 난방 부문의 가스 전환을 지속 확대하고 있음
 - PSG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난방 분야에서 총 213건의 가스망 연결 사업을 완료했으며, 연결용량은 약 23만m³/h, 연간 가스 사용량은 약 6억m³ 규모에 달함
 - 또한 2025년 이후 추가로 68건의 연결 계약이 체결됐으며, 현재 진행 중인 96개 프로젝트의 목표 연간 가스 수송량은 약 10억m³로 집계됨
- **폴 투자용 토지시장 구조적 공급부족 심화, 주거용 중심 연 5~7% 가격 상승 전망(6.12)**
 - 폴 주요 도시의 개발용 토지 공급이 감소하면서 주거용 토지 가격이 최근 5년간 연평균 5~12% 상승
 - 주택 개발 수요는 견조한 상태로, 2025년 6대 주요 도시에서 500개 이상의 신규 주거 프로젝트가 착공
 - 바르샤바의 경우 도심 외곽 주거용 토지 가격은 주거연면적 기준 최대 m²당 8,000즈워티, 도심 핵심지역은 최대 16,000즈워티 수준
 - 신규 도시계획제도인 통합투자계획(ZPI)이 개발용 토지 확보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 개발사업자의 인프라 기여금 부담도 확대되고 있으며, 바르샤바에서는 해당 부담금이 주거연면적 기준 약 m²당 1,200즈워티임

- 기관임대주택(PRS) 및 민간학생기숙사(PBSA) 시장이 빠르게 성장, 신규 PRS·PBSA 프로젝트의 약 70%가 기존 오피스·상업용 토지를 활용, 2020년 이후 약 65만m² 규모의 오피스·상업시설이 주거용으로 전환 진행 중
- 오피스 신규 공급은 크게 감소해 2018년 대비 건설 중 물량이 약 85% 축소, 핵심 입지에서는 신축보다 기존 건물 리모델링 및 용도 변경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개발 가능 토지 부족으로 기업 인수 합병(M&A)을 통한 토지 확보 전략도 증가하는 추세임
- **ORLEN 해상풍력 자회사 ORLEN Neptun 경영진 전격 교체 (6.12)**
 - ORLEN은 6월 11일부로 해상풍력 개발 자회사 ORLEN Neptun의 Janusz Bil CEO와 Wojciech Matuszek 이사를 해임, 해임 사유는 비공개
 - Bil CEO는 2024년부터 회사를 이끌며 Baltic East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차액계약(CfD) 확보를 주도했으며, 해임 직전까지 Świnoujście 설치항 확장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짐
- **GA Police 노동조합, 구조조정 반발 속 파업 찬반 투표 돌입(6.12)**
 - 노조 공동 전선 및 투표 개시 : Grupa Azoty Police 산하 4개 주요 노동조합은 경영진의 단체협약 효력 정지 시도 및 임금 동결 기조에 강력히 반발하며, 6월 중순 전면 파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내 근로자 대상 찬반 투표 시행을 전격 결의
 - 구조조정 리스크 고조 : 노조 측은 경영 실적 악화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 경영진은 누적된 재정 위기 극복과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지출 구조조정임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생산 공정 및 구조조정 일정에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
- **A1 고속도로 노면 변형 구간 보수 착수, 3km 구간에 36백만 즈워티 투입(6.12)**
- **폴 항공 화물 시장 급성장, 중국발 e-커머스 물동량 유입 집중(6.12)**
 - 기록적 화물 성장세 : 폴란드 주요 공항의 항공 화물 처리량이 유럽 내 기존 항공 물류 대국들을 능가하는 성장률을 기록 중이며, 이는 테무

(Temu), 쉬인(Shein) 등 중국 대형 e-커머스 기업들이 폴란드를 중동부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핵심 물류 거점으로 삼고 직항 노선 및 물량을 집중한 결과임

- 물류 인프라 확장 필요성 : 급증하는 중국발 화물 수용을 위해 현지 창고, 통관 시스템 및 배송 네트워크 등 공항 배후 물류 인프라의 추가 확장과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물류 허브 개발 및 인프라 투자 시장의 활성화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PFR, 2026 EKF에서 '팀 폴란드' 금융 연합 가동 및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준비 완료 선언(6.12)

- 국책 금융 연합체(Team Poland) 가동 : 폴란드개발펀드(PFR)는 Sopot에서 열린 2026 유럽재정포럼(EKF)에서 국영개발은행(BGK), 수출보증공사(KUKE) 등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인 '팀 폴란드'를 통해 자국 기업의 글로벌 확장과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맞춤형 복합 금융 공급 역량을 입증함
- 우 재건 및 투자 본격화 : PFR 경영진은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폴란드 및 글로벌 기업들을 지원할 준비가 완비되었음을 강조했다며,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도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인프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장기 자본 매칭 및 보증 인프라를 대폭 강화할 계획

○ 폴란드 정부, 제2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구체화, 에너지 전환 및 전력망 확충 가속화(6.12)

- 제2 원전 구상 공식화 : 폴 기후환경부는 국가 에너지 정책 2040(PEP2040) 가이드라인에 맞춰, 첫 번째 원전 외에 추가적인 전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2국책 원자력 발전소'의 입지 선정 및 재원 조달 모델 수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했음

○ PKP PLK, 바르샤바 동역·Stadion역 현대화 사업 착수, Torpol과 36.35억 즈워티 계약 체결(6.12)

- 폴란드 국가 철도공사 PKP PLK는 건설사 Torpol과 바르샤바 동역(Warszawa Wschodnia) 및 바르샤바 스타디온(Warszawa Stadion) 약 36.35억 즈워티 규모 현대화 사업 계약을 체결

- 해당 사업은 EU 인프라·기후·환경기금(FEnIKS)의 공동 지원으로 추진되며, 2026년 12월 착공 후 2029년 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
- PKP PLK는 이번 사업이 향후 바르샤바 도심 횡단철도 현대화 사업의 선행 단계라고 설명했으며, 대규모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동역 재건 사업과 도심선 개량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
- 한편 PKP PLK는 최근 남부 폴란드 Podłęże - Piekiełko 노선 및 비드고슈치 - 트리시티(BTC) 연결 201호선 사업 등 핵심 철도 프로젝트 계약을 잇달아 체결, 올해 들어 철도 인프라 투자 계약 규모가 50억 즈위티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

○ 그단스크, 바이오폐기물 활용 바이오가스 플랜트 건설 추진(6.12)

- 폴란드 북부 항만도시 Gdańsk는 바이오폐기물을 전기·열에너지 및 유기질 비료로 전환하는 대규모 바이오가스 플랜트 건설 계획을 발표
- 총 사업비는 179.5백만 즈위티 규모로, 폴란드 국가 수자원·환경관리기금(NFOŚiGW)가 사업비의 45%(80.8백만 즈위티)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55%(98.7백만 즈위티)는 저리 융자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
- 사업은 2028년 하반기 준공 및 상업 운전을 목표로 추진 중

○ 폴란드, 美 대외군사금융(FMF) 프로그램 통해 40억 달러 규모 금융보증 확보(6.12)

- 폴 국방장관 Kosiniak-Kamysz은 美 대외군사금융(Foreign Military Financing, FMF) 프로그램을 통해 40억 달러 규모의 금융보증을 확보했다고 발표
- 이번 지원은 미국의 안보지원 체계인 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되며, 폴란드의 국방장비 조달 및 군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금융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데 활용될 전망

○ 폴란드 그단스크, '우크라이나 재건 국제회의(URC 2026)' 약 5,000명 규모 개최 예정(6.12)

○ Baunit, 오폴레주에 1억 즈위티 규모 건축자재 공장 건설 추진, 2027년 가동 목표(6.12)

- 오스트리아 건축자재 기업 Baunit은 카토비체 경제특구(KSSE) 지원을

받아 오폴레주 Zimna Wódka 지역에 약 1억 즈워티를 투자, 폴란드 내 네 번째 생산공장을 건설 중이며, '27년 2분기 가동을 목표 사업 추진

- 신공장은 연면적 약 5,000m² 규모로 현재 주 생산·물류동의 철근콘크리트 골조 공사가 완료됐으며, 공정 타워, 원자재 저장시설, 소방용수 저장시설 등 핵심 설비 구축이 진행 중

○ 체코, EU SAFE 자금 활용해 폴란드 연결 D11 고속도로 건설 추진(6.15)

- 체코 정부는 EU의 안보·방위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SAFE(Security for Europe) 참여를 공식 승인, 총 2,060백만 유로 규모 자금의 상당 부분을 전략 인프라 및 국방 사업에 투입할 계획
- SAFE 자금은 △D11 고속도로 건설 △Leopard 2A8 전차 도입 △Tatra T-815 군용차량 구매 등 3개 핵심 사업에 배정될 예정
- 전체 자금의 약 절반이 D11 고속도로 완공에 투입, 해당 노선은 체코와 폴란드를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으로서 국경지역 Královec - Lubawka에서 폴란드 측 S3 고속화도로와 연계될 계획

○ Port Polska·PKP PLK, 61백억 즈워티 규모 통합철도망(ZSK) 구축 계획 발표(6.16)

- Port Polska와 PKP PLK는 2035년 이후 폴란드 철도망 발전을 위한 장기 로드맵인 '통합철도망(Integrated Rail Network, ZSK)' 계획을 공개, 총 61백억 즈워티 규모의 철도 인프라 투자를 추진할 예정
- 전체 투자비 중 신규 노선 건설에 약 41백억 즈워티, 기존 노선 개량에 약 20백억 즈워티가 투입될 예정이며, 재원 조달 방식은 아직 미확정
- 2035년까지 약 1,000km의 신규 철도망이 우선 구축될 예정이며, 이 가운데 480km는 이미 추진 중인 고속철도 Y 노선으로 구성

○ 폴란드 사상 최대 규모 철도 마스터플랜, 신규 철도 4,700km·고속철 2,700km 건설 추진(6.18)

- 정부는 국가 최초의 장기 철도 개발계획인 통합철도망(ZSK)을 발표하고, 신규 철도노선 4,700km 및 기존 노선 5,600km 현대화 계획 제시
- 신규 노선 중 약 2,700km는 고속철도 기준으로 건설되며, 바르샤바-신공항

- 우치 - 포즈난·브로츠와프를 연결하는 'Y 노선'과 Rail Baltica, 카토비체 - 오스트라바 노선 등이 포함
- 전국 19개 전략 철도회랑을 구축하고 27개 중소도시에 철도 접근성을 제공하는 한편, 120개 이상 환승거점을 조성해 지역 간 연결성 강화 추진
- 철도 이용객 수는 2025년 약 439백만 명에서 2050년 연간 720백만 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화물열차 평균 운행속도도 시속 34km에서 56km로 향상 목표
- 동부 지역에는 기존 계획 대비 확대된 약 490km의 신규 철도가 건설, 루블린·비아위스토크·제슈프·헤움 등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동부 간선철도 (Eastern Main Line)'를 통해 지역 경제 및 교통 통합을 촉진할 계획임
- **힐 인터내셔널 컨소시엄, CPK 신공항 총괄사업관리자 재선정(6.16)**
 - 신공항 건설사업 발주처 Port Polska가 총괄사업관리자(General Contract Engineer, GIK) 선정 절차에 대한 재평가를 완료한 결과, 힐 인터내셔널 (Hill International) 주도 컨소시엄을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재선정하였음
 - GIK는 신공항 건설 전 과정에서 사업 조정·관리 역할을 수행하며, 공사 계약 이행 감독, 일정 관리, 품질 통제, 투자 리스크 관리 및 사업 참여자 간 협업 체계 구축 등을 담당할 예정임
 - 힐 인터내셔널 컨소시엄은 기술·가격 평가를 종합한 입찰 심사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했으며, 계약 규모는 15억 즈위티(약 63백억원) 이상
- **폴 정부, 미군 상설기지 설치 추진 결의안 채택(6.16)**
 - 정부는 자국 영토 내 미군 상설기지 설치를 위한 공식 절차 착수를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국방부에 관련 협상 및 준비 업무를 위임
 - 결의안에 따라 국방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추진하고, 기지 후보지 선정, 기반시설 구축 방안 및 재정 소요 규모를 포함한 폴란드 측 제안서를 마련할 예정임
 - 폴 정부는 현재 평균 1만 명 수준인 주둔 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상설 주둔 병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폴란드-폭스콘, 반도체 공장 및 연 40만 대 전기차 생산 거점 구축**

추진(6.16)

- 폴 정부는 대만 전자기업 폭스콘(Foxconn)과 협력해 돌니실롱스크 지역에 반도체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남부 Jaworzno를 연간 40만 대 규모 전기차 생산 허브로 육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 관련 협약은 올가을 최종 체결 예정
- 반도체 공장은 당초 인텔(Intel)이 추진하다 철회한 투자 부지에 조성될 예정, 전기차 프로젝트는 국영 전기차 기업 EMP와 폭스콘 자회사 폭스트론(Foxtron)이 공동 추진해 2029년 첫 차량 생산을 목표로 함
- 전기차 공장 건설에는 EU 재건기금 기반 대출 45억 즈워티가 투입될 예정이며, 폴란드 정부는 이를 반도체·모빌리티·첨단기술 산업을 연계한 국가 핵심 제조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임

○ 캐나다-폴란드, 원자력 협력 MOU 체결, SMR·공급망 협력 추진(6.16)

- 캐나다 사스캐처원주(Saskatchewan)와 폴란드 마조비에츠키주(Mazowieckie)는 원자력 발전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력양성, 연구개발, 혁신 및 원전 공급망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
- 양측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과 관련 인프라 구축, 교육·연구 협력 플랫폼 조성을 통해 에너지 안보 강화와 원전 산업 생태계 육성을 공동 추진할 계획
- 캐나다 우라늄 기업 Cameco는 원전 연료·원자로 기술·공급망 분야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협약은 폴란드의 원전 도입 및 공급망 구축을 지원하는 기반이 될 전망

○ 폴 정부, 투자 확대 및 외국인 자본 유치 위한 5대 경제 활성화 패키지 발표(6.16)

- 폴란드 재무장관 Domański는 바르샤바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Poland Invests' 행사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와 국내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5개 핵심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 첫 번째는 신규 투자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기존 대비 약 50% 확대된 재원을 투입해 대규모 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임
- 두 번째는 청정기술(Clean Tech) 투자 지원 확대이며, 향후 폴란드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임

- 세 번째는 '폴란드 투자구역(Polish Investment Zone)' 개편으로, 세제 혜택 기간을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신청 절차를 전면 전자화하는 등 제도 효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임
- 네 번째는 수출신용보험공사(KUKE)의 보증 범위를 확대해 수출뿐 아니라 안보, 에너지 전환, 신기술 투자까지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약 200억 즈워티 규모 자금 동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다섯 번째는 'Accelerate PL' 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투자펀드·산업 전문가를 연계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투자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임
- 이번 정책 패키지는 외국인 투자 확대와 동시에 에너지 전환 및 기술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폴란드의 중장기 성장 전략으로 평가됨
- 폴 정부, 국가안보·국방기금(FBiO) 230억 즈워티 규모 투자계획 확정, 방호·군사이동·사이버·R&D 집중 배분(6.16)
 - 폴란드 정부는 EU 재건기금(KPO) 자금을 기반으로 조성된 국가안보·국방기금(FBiO, National Security and Defence Fund)의 총 230억 즈워티 규모 투자계획을 승인했음
 - 투자 분야는 ▲방공호 건설 및 상수원 보호(99억 즈워티) ▲군사 이동성 강화를 위한 철도·도로 인프라 현대화(64억 즈워티) ▲핵심 인프라 및 에너지 부문 포함 사이버보안 강화(25억 즈워티) ▲국방 R&D 및 방산 기업 현대화(41억 즈워티)로 구성됨
- 폴란드 정부, AI 스타트업 ElevenLabs에 11백만 달러 투자, 바르샤바 AI 허브 구축 본격화(6.17)
 - 폴란드 정부는 폴란드계 AI 음성 기술 기업 ElevenLabs에 약 11백만 달러를 투자하며 국내 AI 생태계 강화 전략을 추진
 - 투자는 폴란드 국책개발은행 BGK 산하 펀드 Vinci를 통해 이뤄지며, 정부는 해당 기업의 지분 참여자로 합류
 - ElevenLabs는 AI 더빙, 음성 생성, 대화형 오디오 기술을 개발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기업가치는 약 110억 달러 수준

- 해당 투자금은 바르샤바 내 연구·개발 거점 확대 및 글로벌 수준의 AI 개발센터 구축에 활용될 예정

○ 폴란드 바이오가스 발전 설비 확대, 총 21번째 플랜트 가동 및 재생 에너지 생산 능력 22MW로 증가(6.18)

- 프랑스 TotalEnergies 계열 Polska Grupa Biogazowa(PGB)는 폴란드 남부 고고린(Gogolin)에 1MW 규모 신규 바이오가스 발전소를 가동하며 총 21개 설비 운영 체계 구축
- 해당 시설은 연간 약 9GWh 전력을 생산해 약 3,000가구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규모
- PGB 전체 설비 기준 연간 약 192GWh 전력 생산이 가능하며, 약 6.9만 가구에 전력 공급 효과 발생
- 향후 2030년까지 바이오메탄 환산 기준 2TWh 생산능력 확보를 목표로 하며, 재생에너지 및 민간 투자 확대 흐름과 연계된 사업으로 평가됨

○ Patron Capital과 Trei Real Estate, 폴란드 리테일파크 6개 자산 약 1.1억 유로에 매각(6.18)

- Patron Capital과 Trei Real Estate는 폴란드 전역 6개 리테일파크(총 68,000m² GLA)를 Generali Investments CEE 및 SCF 합작투자사에 약 110백만 유로 규모로 매각
- 매각 대상 자산은 Chorzów, Otwock, Skarżysko-Kamienna, Szczecin, Kostrzyn nad Odrą, Zambrów 등 지방 도시에 위치한 식료품 중심 편의형 리테일 시설
- 폴란드 소도시 중심의 현대식 리테일 인프라 부족과 편의형 소비 확대가 해당 부문의 투자 매력을 강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스위스 Holcim, 비엘라비에 골재 생산공장 건설 착수, 98백만 즈위티 투자(6.18)

- 스위스 건설자재 기업 Holcim의 폴란드 법인인 Holcim Polska는 쿠야비 시멘트 공장 내 석회석 광산 부지인 비엘라비(Bielawy)에 신규 골재 생산 공장 건설을 시작했으며, 총 투자 규모는 98백만 즈위티로 집계

- 이번 사업은 폴란드 폴란드(Aggregates) 부문 최대 투자 프로젝트로, 신규 공장은 쇄석 및 도로용 혼합재 생산에 특화되며 연간 2백만 톤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
 - 신규 설비는 기존 2개 생산설비를 대체하게 되며, 이를 통해 운영 효율성 제고, 자원 활용 최적화 및 환경영향 저감 효과가 기대됨
- 폴란드 PKP 인터시티, 독일 중고 객차 96량 추가 도입 추진(6.18)
- 폴 국영 철도운영사 PKP Intercity는 독일 철도사 Deutsche Bahn(DB)로부터 중고 객차 96량을 추가 구매할 계획이라고 발표, 오는 7월 17일 공식 입찰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
 - 회사는 최근 지속적인 여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 확충을 추진, 2024년 이용객 89백만 명에서 2026년 96백만 명 수준까지 수송 실적 확대를 목표로 설정
 - PKP 인터시티는 여객 증가와 운행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말 DB로부터 중고 객차 50량을 구매하였으며, 해당 차량은 2026년 초부터 상업 운행에 투입됨
- 폴 ZUE·Duna Polska 컨소, 11.25억 즈워티 규모 철도 현대화 사업 수주(6.19)
- 폴 철도 운영사 PKP PLK는 건설사 ZUE S.A.와 Duna Polska 컨소시엄을 철도노선 201호선 현대화 사업의 우선 사업자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
 - 사업 대상은 비에르후친(Wierzchucin) - 리포바 투홀스카(Lipowa Tucholska) 구간 및 막시밀리아노보(Maksymilianowo) - 비에르후친 구간으로, 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
 - 계약 규모는 총액 기준 1,125백만 즈워티에 달하며, 사업 완료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8개월
- Tauron Dystrybucja, 93백만 즈워티 규모 전력망 현대화 완료(6.19)
- 폴 전력망 배전계통 운영사 Tauron Dystrybucja는 총 93백만 즈워티 이상을 투입해 헤르비(Herby) 및 미야추프(Mijaczów) 변전소(GPZ)와 약 50km 규모의 고압(110kV) 송전선로 현대화 사업을 완료
 - 이번 사업을 통해 철도 인프라에 7MW 규모의 신규 전력 공급능력이 확보되었으며, 해당 사업은 EU 인프라·기후·환경 기금 지원을 받아 추진됐으며,

공사는 전력 인프라 전문기업 Electricicon이 수행

○ ORLEN, 노르웨이 Goliat 유전 지분 20% 인수 추진(6.19)

- 폴 국영 석유기업 ORLEN의 노르웨이 자회사인 ORLEN Upstream Norway는 노르웨이 에너지기업 Vår Energi와 Goliat 유전을 포함한 5개 광구의 지분 20% 인수 계약을 체결
- 이번 거래를 통해 ORLEN의 노르웨이 내 석유·가스 확인 매장량은 약 58백만 배럴 석유환산량(boe) 증가하며, 이는 기존 보유 매장량 대비 약 15% 확대 효과에 해당
- ORLEN은 향후 4년간 추가 생산정 시추 및 생산설비 확충에 투자해 해당 자산의 생산량을 현재 하루 약 4,000배럴(boe)에서 2030년 이전 12,000배럴 수준으로 3배 확대할 계획
- 거래는 노르웨이 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완료 시 지분 구조는 Vår Energi 45%(운영사), Equinor 35%, ORLEN Upstream Norway 20%로 재편될 예정

4 우크라이나 정부외교 및 정책

○ 메르세데스-벤츠, 우크라이나 공급 드론 스타트업과 대드론(C-UAS) 분야 전략적 협력 추진(6.11)

- 독일 Mercedes-Benz가 뮌헨 소재 드론 스타트업 Tytan Technologies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추진 중
- Tytan Technologies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요격 드론을 공급 중, 2026년 여름 뮌헨에 신규 생산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월 최대 3,000대 규모의 드론 생산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BGV Development, 키이우주 보야르카에 2.4만㎡ 규모 'Zhito' 쇼핑·엔터테인먼트센터 건설 착수(6.11)

- BGV Development는 키이우주 Boiarka에 총면적 24,000㎡ 규모의 'Zhito' 브랜드 쇼핑·엔터테인먼트센터(SEC)를 건설할 계획
- 16,000㎡ 이상이 상업시설로 조성되고 주차장은 600대 이상 규모로

예정, 향후 1.5~2년 내 개장 목표임

○ 2026 부대행사 개최 발표,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 내 인권·법치 거버넌스 확립 논의(6.12)

- 재건 회의 연계 부대행사 확정 : 유럽평의회(CoE)는 6월 말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열리는 '2026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URC 2026)'의 공식 부대행사로 우크라이나의 인권 보호, 법치주의(Rule of Law) 강화 및 민주적 거버넌스 복구를 위한 국제 고위급 세션을 공동 개최한다고 발표
- 포용적 재건 가이드라인 수립 : 이번 행사는 대규모 재건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피해 주민 중심의 포용적 복구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논의하는 자리로, 향후 글로벌 금융기관 및 다국적 투자자들의 재건 프로젝트 참여 기준과 거버넌스 조건 설정에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다

○ 우, 방위 산업 및 첨단 기술 중심의 전후 재건·인프라 구축(6.12)

- 방산·기술 중심 경제 재편 : 우크라이나 정부는 단순 부서 복구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방위 산업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AI 및 군사 첨단 기술(Mil-Tech) 부문을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이행 강화 추진
- 글로벌 파트너십 및 자본 유치 추진 : 현지 생산 시설 구축 및 합작 법인 설립을 위해 글로벌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을 다각화하고 있으며, 서방의 재건 기금과 민간 투자를 첨단 제조 허브 조성에 집중시켜 장기적인 독자 생존 역량을 강화할 계획

○ Maspex, 우크라 음료업체 Karpatski Mineralni Vody 지분 80% 인수(6.15)

- 폴란드 식품·음료 대기업 Maspex는 우크라이나의 생수·음료 제조업체 Karpatski Mineralni Vody 지분 80%를 인수했다고 발표
- 시장에서는 이번 거래 규모를 약 30백만~50백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 이는 Maspex의 우크라 내 첫 대규모 생산자산 인수 사례
- Karpatski Mineralni Vody는 우크라이나 주요 생수 브랜드인

‘Karpatska Dzherelna’를 비롯해 주스음료 브랜드 ‘Sokovynka’, 스낵 브랜드 ‘Gonzo’ 등을 보유

- Maspex는 현재 Tymbark 주스, Nestea 아이스티, Żubrówka 및 Soplica 등 70개 이상의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 매출은 155억 즈워티(약 41억 달러)를 기록

○ Ukrhydroenergo, 수력발전소 ‘에너지 허브’ 전환 위해 풍력·ESS 투자 추진(6.16)

- 우크라이나 국영 수력발전 기업 Ukrhydroenergo가 기존 수력발전 인프라를 다중 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허브’로 전환하기 위해 풍력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 회사는 총 200MW 규모의 BESS 구축 프로젝트를 현재 입찰 단계에 두고 있으며, 모든 수력발전소에 ESS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전력망 유연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임
- 또한 약 150MW 규모의 풍력발전 프로젝트도 준비 중이며, 일부 수력발전 부지에 풍력 터빈을 설치해 수력·풍력 복합 발전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英, 우크라 원전 연료 공급 위해 210백만 파운드 금융 지원 제공(6.16)

- 영국 정부는 우크라 에너지 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210백만 파운드 규모의 금융지원을 승인, 이를 통해 영국계 우라늄 농축기업 Urenco가 우크라 국영 원전 운영사 Energoatom에 향후 2년간 농축우라늄을 공급할 예정임

○ G7,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합의, 트럼프 “러시아 즉각 협상 나서야”(6.17)

- 프랑스 에비앙(Evian-les-Bains)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미국·영국·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 정상들은 우크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종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러시아는 협상에 나서야 하며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종전 중재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방공망 강화와 외교적 해법 추진이

회의의 핵심 의제였다고 설명하며, 러시아가 전쟁을 종식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

○ 우크라이나, EU ‘연대의 길(Solidarity Roads)’ 사업 통해 도로 인프라 개선 자금 96백만 유로 확보(6.16)

- 우크라이나 내각은 EU의 ‘연대의 길(Solidarity Roads)’ 이니셔티브에 따른 도로망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 유럽투자은행(EIB)으로부터 96백만 유로 규모 차관을 도입하는 안을 승인
- 해당 자금은 ‘교통망 복구(Restoration of Transport Networks)’ 사업의 2차 지원(Tranche B)으로 제공되며, 우크라이나 국가재건·인프라개발청(State Agency for Restoration and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이 주요 도로 및 물류축 현대화 사업을 수행할 예정
-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EIB 간 금융협정 비준법에 서명했으며, 해당 협정에 따른 도로 부문 총 지원 규모는 134백만 유로에 달함

○ 우크라이나·독일, 에너지 협력 확대 합의, 노후 발전설비 이전 지원에 1백만 유로 투입(6.16)

- 슈미할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에너지장관과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화상회의를 갖고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복구 및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확대 방안에 합의
- 독일 정부는 유럽 내 폐지 발전소 설비의 해체·운송 비용 지원을 위해 1백만 유로를 배정했으며, 현재 라트비아 리가 열병합발전소(CHP) 설비 이전 사업이 진행 중
- 이전되는 발전설비는 2026년 여름 중 하르키우(Kharkiv)와 키이우(Kyiv) 지역 에너지 시설에 공급될 예정
- 독일은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에너지 부문에 12억 유로 이상의 긴급 지원과 우크라이나 에너지지원기금(Energy Support Fund) 출연금 557백만 유로를 제공

○ 키이우, 산업단지 2곳 인프라 구축에 총 40.1백만 흐리우나 공적

지원 집행(6.17)

- 우 정부는 산업단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키이우 지역 'City of Glass'와 폴타바 지역 'Smart Tech Industry' 2개 단지에 총 40.1백만 흐리우냐 규모 자금 배정
- 해당 지원은 정부·민간이 1:1로 매칭하는 공동 재원 방식으로 운영

○ 빈니차 지역, 매립지 바이오가스 활용한 친환경 전력 생산 추진, 부지 기반 에너지 전환 사업 승인(6.17)

- 우 Vinnytsia 시의회 집행위원회는 매립지 현대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7.7헥타르 부지를 시 소유로 이전하는 계획을 승인
- 해당 부지에는 폐기물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포집·전력으로 전환하는 기술 설비를 구축할 예정이며, 스타드니차(Stadnytsia) 인근 기존 고품폐기물 매립지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Kyivteploenergo, EBRD 지원 기반 가스엔진 발전소 3기 건설 추진(6.18)

- 키이우시 공공에너지 기업 Kyivteploenergo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금융 지원을 유치해, 키이우 내 3개 부지에 가스엔진 기반 발전소를 터키 방식으로 건설·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 본 사업은 차입금 및 보조금 형태의 EBRD 자금 지원이 일부 포함될 예정, 구체적인 지원 규모·설비 용량·준공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음
- 해당 프로젝트는 분산형 발전 확충 및 열병합 발전(cogeneration) 확대를 통해, 전력 인프라에 대한 공격 및 공급 불안정 상황에 대비한 키이우 에너지 시스템 회복력 강화가 목적
- 키이우 시장 Vitali Klitschko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60MW 규모의 분산형 발전 설비가 구축 완료되었고, 추가 100MW는 건설 중이며 연내 약 200MW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

○ Agromino, Chornomorsk 항만 물류자산 매각 검토, 핵심 사업 집중 전략(6.17)

- 우크라이나 농업기업 Agromino는 Chornomorsk 항만 내 보유 중인 항만 운영사 및 저장 인프라 매각을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핵심 사업 투자 재원을 확보할 계획

- 매각 이후에도 해당 항만을 통한 자체 물류·수출 활동은 지속할 예정으로, 터미널 운영 및 저장시설 관리권만 외부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구조가 유력
- 해당 터미널은 여전히 주요 물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2025년 7월 이후 누적 40만 톤 이상의 화물이 처리되는 등 높은 활용도를 유지
- **우크라이나, 오데사 - 레니(M-15) 고속도로 현대화 및 다뉴브강 교량 건설 타당성 조사 착수(6.17)**
 - 우크라이나 공공·민간협력(PPP) 지원청은 KPMG 우크라이나와 계약을 체결하고, 남부 오데사주 핵심 교통축인 M-15 오데사 - 레니 고속도로 현대화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Pre-Feasibility Study)를 착수
 - M-15 노선은 오데사 남부 지역과 다뉴브강 항만,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방면 국제 국경검문소를 연결하는 전략적 물류·수송 회랑으로, 약 300km 구간의 전면적인 현대화가 검토 대상
 - 동 사업은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프로젝트 준비 지원기구(Ukraine Project Preparation Facility, Ukraine PPF)’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며, 다뉴브강 교량은 기존 오를리우카 - 이사크차(Orlivka - Isaccea) 페리 노선을 대체하는 인프라로 계획됨
- **우크라이나 카미야네츠포딜스키, 산업단지 2개 조성 추진, 총 14.7억 흐리우냐 투자 유치 기대(6.18)**
 - 카미야네츠포딜스키 시의회는 ‘카미야네츠(Kamianets)’ 및 ‘포딜리아(Podillia)’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승인, 총 1,470백만 흐리우냐 이상의 투자 유치와 약 1,25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
 - 카미야네츠 산업단지는 최대 835백만 흐리우냐 규모 투자 유치 예상, 2028~2034년 동안 약 7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각급 예산에 약 224백만 흐리우냐의 세수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
 - 포딜리아 산업단지는 10헥타르 규모의 산업용지에 조성, 금속가공 산업 특화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하며, 기존 생산시설을 활용한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 총 투자 규모는 약 640백만 흐리우냐로 추산
- **우크라 국가 복원력 강화 계획 추진, 678억 흐리우냐 투입, 이행률**

40% 수준(6.19)

- 우 정부는 러시아의 공격에 대응하고 향후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종합 복원력 강화 계획(Comprehensive Resilience Plans)'을 추진 중이며, 현재 지역별 평균 이행률은 약 40% 수준
- 확보된 재원은 678억 흐리우냐로, 이 중 278억 흐리우냐는 예비기금, 400억 흐리우냐는 국가예산에서 배정
- 급수 프로젝트의 약 90%는 이미 설계 및 예산 문서가 완료된 상태로 착공 준비를 마쳤으며, 정부는 최근 추가 배정된 400억 흐리우냐를 활용해 지방 정부와 공동 재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폴-우 외교 갈등 심화, 젤렌스키 대통령 훈장 반납으로 양국 긴장 고조(6.21)

- 폴란드의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UPA(우크라이나 반군) 관련 기념 조치를 문제 삼아 2023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수여했던 폴란드 최고 훈장인 '백수리 훈장(Order of the White Eagle)'을 박탈
- 갈등 계기는 우크라이나가 군 부대 명칭에 UPA 영웅을 기리는 명칭을 부여한 것으로, 폴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UPA의 반폴란드 활동과 볼히니아 학살 문제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
- 폴란드 정부는 이번 조치가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적대 행위가 아니며, 대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및 전략적 협력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
- 젤렌스키 대통령은 폴란드 최고 훈장을 반납했으며, 안드리 시비하 외무장관, 이호르 조브크바 대통령실 부실장, 바실 보드나르 주폴란드 대사 등이 동참했으며, 전직 대통령인 레오니드 쿠치마, 빅토르 유셴코, 페트로 포로셴코도 백수리 훈장 반납 의사를 밝혀 외교적 파장이 확대되는 양상
- 다만 양국 정부는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은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어, 역사 인식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양국 안보 협력 전반으로 확산될지는 추가 관찰이 필요

□ 주요 프로젝트 동향

① 폴란드 투자개발형 및 타당성 조사 사업

① 석화(PDH/PP) 플랜트 건설 운영사업

< 사업 개요 >

- (사업주) Grupa Azoty, ORLEN, 현대엔지니어링, KIND
- (사업비) 1,840백만불
- (사업내용) 폴리프로필렌 연간 40만톤 생산
- (추진현황) '19. 4월 KIND 참여의향서 제출
'20. 10월 금융종결
'25. 8월 발주처, EPC 관련 보증 회수(Bond Call)
'25. 10월 ORLEN, Grupa Azoty에 250백만불 규모 투자안 제안
'25. 11월 현지SPC, 폴란드 법원에 구조조정 및 파산 신청
'26. 3월 현지SPC-현엔-카인드 구조조정(안) 관련 합의 완료

- (주요동향) '26.3.30 폴란드 법원에 구조조정 및 회생안 제출하였으며,
'26년 상반기 중 폴란드 법원의 심의 결과 도출 예정

② Ursus 열병합 발전소 건설 운영사업

< 사업 개요 >

- (사업주) KIND, 남동발전, 베올리아, BHI
- (사업비) USD 453백만
- (사업기간) 2026.2.~2054.12. (건설 38개월, 운영 25년)
- (주요내용) 전기 110MWe, 열 90MWt 규모 열병합 발전소 건설 및 운영
- (추진현황) '23. 4월 KIND 사전검토위원회 의결
'24. 1월~7월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 (F/S 컨설팅지원)
'25. 10월 타당성조사 재검증 용역 실시 (남동발전)
'25. 12월 KIND 투자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
'26. 7월 금융종결 및 NTP 발급
'29. 8월 COD

- (주요동향) 주주 간 계약 등 주요 계약서 execution version 도출 협의

③ 폴란드 바르샤바 모듈러 주택 단지 개발사업

< 사업 개요 >

- (사업주) GS건설, Cordia, KIND
- (사업비) PLN 83.34백만
- (사업내용) 총 전용면적 5,296m², 중형(수평분리) 및 대형주택(수직분리) 36세대 건설
- (추진현황) '25. 2월 GS건설-Cordia 공동개발 논의
'25. 3월 GS건설, KIND向 사업참여 요청
'25. 6월 KIND 사전검토위원회 승인
'25. 9월 GS건설-KIND간 공동개발업무협약의향서 체결
'25. 12월 투자심의 승인
'26. 1월 이사회 승인

- (주요동향) '26년 6월 법률자문(현지법인 설립) 시행, 이사회 부의(자회사 설립)
'26년 7월 투자계약 및 SPA 체결(KIND↔ZEIT)
* 폴란드법 상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제한, 현지법인 설립 또는 인수조치 필요

④ 폴란드 카토비체 물류센터 개발사업

< 사업 개요 >

- (사업주) LX판토스, KIND, PIS펀드
- (사업비) € 129.7백만 (약 2,075억원)
- (사업내용) 총면적 108,977m² 규모 물류센터 5개동(Phase I: DC 1·2동, Phase II: DC 3,4,5동) 건설
- (추진현황) '24. 4월 물류센터 Phase 1 착공(시공사 자체자금으로 진행)
'25. 9월 물류센터 Phase 1 준공 및 운영 시작
'25. 11월 LH 사업 철회 및 KIND 사업 검토
'25. 12월 KIND 투자승인 / Phase 2 건축물 공사 착공
'26. 1월 금융종결
'26. 3분기 물류센터 Phase 2 준공(예정)

- (주요동향) '26.6. Phase II 잔여 부지(DC4, DC5)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신규 임차인 협상

⑤ 폴란드 루블린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및 통합 관제센터

< 사업 개요 >

- (주관기관) 이에스이(주), (주)아이티코어스, (주)영국씨애피
- (수원정부) 폴란드 루블린시청
- (사업기간) '26.4.1 ~ '26.12.26.
- (사업예산) 700백만 원
- (사업내용) 스마트시티 개발 전략과 통합 관제센터 구축계획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기존 교통관제 고도화 및 실증사업 수행
- (추진현황) '26. 4월 현지 착수보고회 개최 및 현지조사 수행
'26. 7월 중간보고회 개최 예정
'26. 9월 국내 초청 역량강화연수 예정
'26.12월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

- (주요동향) '26.4.28. 현지 착수보고회 개최 및 LoI* 체결(KIND-루블린시)
'26.6.2. MoU* 체결(KIND-루블린시)

* 스마트시티 협력 및 루블린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역할과 관계 규정

⑥ 우크라이나 EIPP 전후 재건을 위한 산업전략 10개년 및 3개년 실행 계획 수립 사업

< 사업 개요 >

- (주관기관) 안진회계법인(재무), 현대경제연구원(경제), 스마트도시건축학회(도시)
- (수원정부) 우크라이나 경제농업환경부
- (사업기간) '26.2.13. ~ '26.9.10. (210일)
- (사업예산) 1,241백만원 (재위탁 용역금액 818 백만원)
- (사업내용) 전후 재건을 위한 산업구조를 클러스터 관점에서 기본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함
- (추진현황) '26. 4월 착수보고회 개최 완료(온라인, 27일)
'26. 6월 세부실태조사 수행/URC 폴란드 행사참여(6. 22.~6. 28.)
'26. 7월 역량강화연수 및 중간보고회 개최 예정(국내)
'26. 9월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

- (주요동향) 착수보고회 개최(4.27), 현지조사 및 URC 재건회의 참석(6.24~)

참고

6대 선도 프로젝트 진행현황

프로젝트명	주요내용	담당기관	추진현황 및 계획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키이우 지역 공간개발 및 재건 계획 수립, 우선사업 선정 및 pre-FS 등 * '23.12~'24.11 (수행 : 유신 컨소시엄) (2단계) 교통모델 개발 및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기반 교통계획 수립 등 * '24.5~'24.11 (수행 :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 	KIND LH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키이우, '25.4월) 후속사업(디지털교통 플랫폼 구축) 국토교통 ODA 추진
우만 스마트 시티 마스터플랜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크라 중부도시 우만市에 대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도시개발전략 수립(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솔루션 등) * '23.9~'24.4(수행 : 제일Eng, 수자원공사 등) 	KI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24년 4월) EDCF 사업화 모니터링 (계속)
보리스 필 공항 현대화 등 재건 (추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공항시스템 및 항행안전 시스템 제공 등 현대화사업, 공항 확장·개발 (활주로 등) 사업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 	한국 공항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대화(공항시스템 개선) : '24년 외교부 ODA 선정, PMC 선정 ('24.10월) 공항MP : 2026 국토교통 ODA 추진중 확장FS : 국토부 지원 사업 과업착수('24.12), 최종보고('25.12)
부차시 하수처리 시설재건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키이우지역 부차市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 수립 	환경산업 기술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e-F/S 수행결과 최종 평가 완료('26년 1월) * 환경부 F/S 지원사업 현지상황 모니터링 후 후속사업 추진여부 결정
댐 재건 및 현대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호우카 댐, 이르핀강 댐 등 재건 기술지원 및 부대시설 설계 등 그 외 노후수력 댐 진단 및 현대화 사업 추진 	수자원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년 기재부 KSP사업 선정(수자원시설 정책. 기술자문), 용역 발주 예정('26년 3분기)
철도노선 고속화 등 (추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키이우~폴 바르샤바 구간 중 4개 구간 타당성 조사 ①키이우~지토미르~루츠크~국경(약 375km) ②키이우~빈니차~리비우~국경(약 580km) ③키이우~지토미르~리브네~리비우~국경(약 505km) ④키이우~지토미르~루츠크~리비우~국경(약 525km) * 우크라는 철도 운영속도 향상(50→150km/h) 추진 중 	철도공단 (* 운영 등 코레일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25년 12월) 및 착수 보고회 개최('25.3월) * 외교부 ODA 지원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예정 ('26.12월)